

디지털 인증의 현재와 미래



국민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선택권 제공 방향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차별 없는 경쟁환경 조성

KISA 박정효 책임연구원

전자서명법 제 - 개정 추진경과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 제도 초기의 빠른 인프라 구축에 기여 공인전자서명의 법적 우위에 따른 시장 독점 발생 전자서명 신기술 발전 저해 및 서비스 혁신 저해

Active-X 기반 서비스로 인한 운영체제/브라우저의 호환성 문제

Window와 IE에 종속적인 서비스

저장방식과 배포방식으로 인한 보안상의 문제점

보안토큰이 아닌 일반 영역 내(HDD 등) 저장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전자서명수단 간 경쟁 활성화 정부의 공인전자서명의 법적 우위를 폐지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 부여**

전자서명 이용자 보호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이용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평가 · 인정제 도입**

경과조치

기존 공인인증서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마련 등

■ 추진경과

1999. 02 - 전자서명법 제정 / 1999. 07 - 전자서명법 시행

2015. 03 - 금융, 전자금융업자의 인증방법을 완전 자율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2018. 03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12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시행

■ 연관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감독규정

- 보험업법 시행령
- 상법
- 의료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 시장의 변화

정부 중심의 공인인증제도 폐지

민간 중심의 자율 평가 • 인정 제도 시행 다양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확산 시작

공인인증기관, PKI 기술기반의 보안 업체 주도의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기술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법적지위 폐지

- 법적 효력의 우위로 인한 시장 독점의 문제 발생
- 사용자의 불편성 증대 및 지속적인 보안 취약점 발생



-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책 전환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활성화와 동시에 전자서명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용자 &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출현















- 민간 주도의 간편 전자서명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 이용기관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도입
- 대기업 중심의 시장주도로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어려움 존재

다양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출현으로 이용기관의 도입 부담 증가 & 국민불편 발생



상호연동 지원 필요성 대두





질병관리청



마이데이터

행안부 시범사업



- 표준화 미비로 상호호환성 부재
- 보안성, 운영성에 대해 이용기관의 중복 검토 및 도입 비용 증가
- 이용기관의 신속한 적용 체계 지원 미비

시사점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정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제도 개편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수단 출현 (18개, '22.8월 기준)



다양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상호호환성 지원체계 필요성 대두

다양한 전자서명 적용사례

행정안전부 이용기관 능A 기능B 기능C 기능D 중계운영사 Relay 본인확인 기관 연동 플러그인 통합 I/F (REST API) 연증관리 모듈 -0 TANKS. → E000 Foxe 전자서명 관리 모듈 통합인증창 WEB 모듈 ---A--A---설명테이터 인증서 발급 인증 둘킷 PASS FEE No. 인증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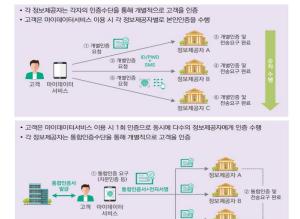
- 전자서명공통기반 사업을 통해 구현
- 중계 모듈의 개발 및 이용기관측에 배포하는 구조 ※ 각 이용기관 측에 중계 모듈을 On-Premise 형태로 구축
- 중계 모듈에서 민간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통신 규격을 개별로 구현하여 중계하는 방식

질병관리청



- COVID-19 백신 예약을 위한 사용자 확인
- 민간클라우드 내 다양한 사용자 확인 수단 중 하나로 사용
- 별도의 중계 모듈이 아닌, 각각의 민간전자서명인증 사업자와 직접 통신하는 형태로 구현

금융위원회



- 정보제공자별 개별 인증 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통합 인증 사용 가능
- 전자서명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전자서명 허용

시사점

통합된 중계모듈의 개발에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별 규격을 사용



개별 분야에서 구축된 결과물을 타 분야에서 활용하지 못해 별도의 구축 및 테스트로 인한 중복투자 발생



이용기관의 검토 기간 단축 및 중복투자의 해결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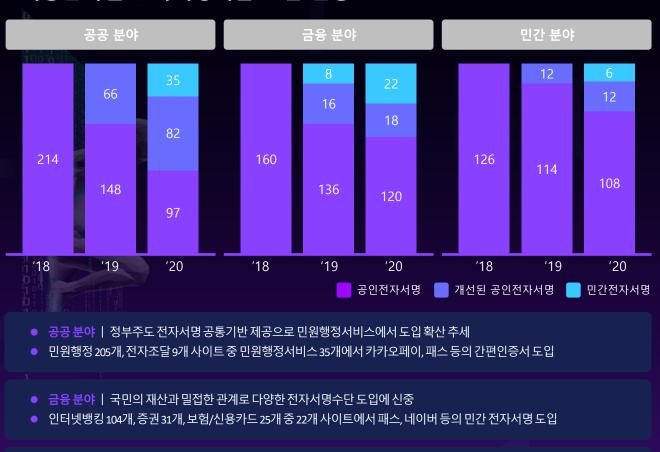
정보제공자 C

웹사이트 전자서명 이용현황

■ 500개 웹사이트 전자서명 이용실태 조사 결과

구분		주요 서비스 분야	대상
공공	민원행정	연말정산, 정부민원, 부동산전자등기 등	205
	정부전자조달	전자조달, 전자입찰 등	9
금융	인터넷뱅킹	인터넷 은행거래, 은행 계좌관리 등	104
	인터넷증권	인터넷 증권거래, 증권 계좌관리 등	31
	인터넷보험/카드	보험상품 가입해지, 신용카드 신청해지 등	25
민간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전자세금계산서, 휴대전화 개통 등	16
	온라인교육	대학 학사업무, 평생교육원 학사업무 등	66
	전자의료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등	44
	500		

■ 이용분야별 전자서명기술 도입 현황



- 민간분야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확산체계 부재로 이용기관의 도입이 저조
- 전자상거래 16개, 온라인교육 66개, 전자의료 44개 중 6개 사이트에서 카카오, 네이버, 패스 등의 민간 전자서명 도입

[출처: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전자서명 이용 실태조사('20.12월, KISA)]

국민의 개선 요구사항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전자서명수단이 다양한 홈페이지에서 지원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고 상호연동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

* 국민이 생각하는 상호연동성은 하나의 전자서명수단으로 다양한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환경을 의미

국민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사용할 때 불편사항으로 "다양한 홈페이지에서 이용 불가능(37.1%)"한 점을 가장 높게 응답

다양한 안정적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인증서가 인증서 종류가 구분 서비스에 대한 이용 불가능 익숙치 않아서 많아서 의구심 37.1% 전체 31.7% 25.7% 4.8% 0.6% 43.2% 공공 2.3% 0.0% 22.7% 31.8% 42.2% 금융 4.7% 25.0% 26.6% 1.6% 27.1% 민간 6.8% 0.0% 45.8% 20.3%

또한, 국민은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상호연동성(63.1%)"을 가장 높게 응답

구분		상호연동성	서비스안정성	이용편의성	다양한 이용처	이용비용
전체		63.1%	53.6%	44.3%	32.4%	6.7%
연령	10대	34.8%	63.0%	50.0%	32.6%	19.6%
	20대	65.1%	49.1%	47.1%	32.5%	6.2%
	30대	65.0%	50.1%	44.2%	34.6%	6.1%
	40대	62.5%	56.4%	41.4%	33.3%	6.4%
	50대	61.6%	55.7%	45.5%	30.6%	6.6%
	60대	65.6%	54.5%	44.3%	29.2%	6.3%

[출처: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전자서명 이용 실태조사('21.12월, KISA

다양한 전자서명 상호연동 지원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 수단에 대한 상호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인증 확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추진('21.6월~11월)

■ 배경 및 목적

디지털인증 확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추진

센터운영 최적화 프로세스 수립

다양한 전자서명 연동을 위한 기술 및 기반구조 수립 정보자원 관리체계 수립

목표 모델 구축 전략 수립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확보 및 동일한 서비스 경험을 제공 도입기관의 연동 편의성 확보로 전자서명 시장 활성화

각기 다른 전자서명 방식에 대한 이용기관의 연동 및 운영 부담 완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안정성, 편의성, 신뢰성 제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전자서명법 개정 및 데이터 3법 개정,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로 전자서명수단 간 차별 없는 경쟁 환경 조성으로 디지털 인증 본격화로 전자서명 시장 재편
-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양한 기술방식과 규격으로 전자서명을 개발 활용할 예정으로 상호호환성 문제우려

국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상호연동 지원체계 필요성 검토

 신뢰성 있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이용기관이 쉽게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 환경 제공 필요

상호연동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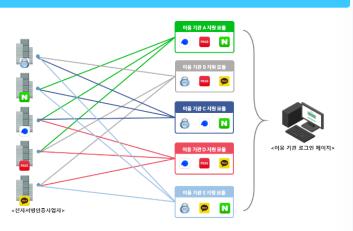
- 국민의 신뢰성 있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선택권 제공
- 인증서, 생체인증(FIDO), 분산신원증명(DID) 등 다양한 전자서명서비스가 신뢰성있게 확산됨에 따른 이용기관 비용절감 효과 발생

디지털인증 확산센터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 상호연동지원센터 요구사항 도출 및 정의
- 상호연동지원센터 기능 도출 및 업무프로세스 설계
-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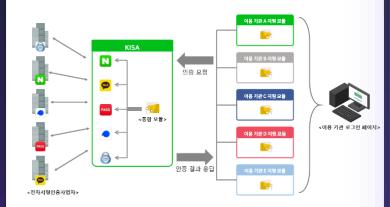
다양한 전자서명 상호연동 지원방안 비교

방안1 : 민간자율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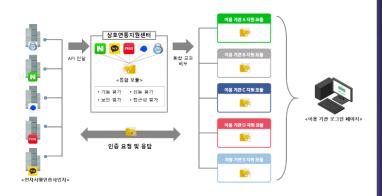
- 이용기관의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 도입의 어려움
- 국민의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선택권 제한
- 개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마다 상이한 인터페이스로 인해, 신규 적용 및 개별 협의에 대한 어려움 존재

방안2: 중계서비스 제공 방식



- 이용기관과 서비스 사업자간 중간자 역할을 수행
- 통합 연동규격의 마련으로 신규 사업자 및 변경 사항에 대해 이용기관측의 최소화 변경
- 중계서비스는 대용량 트래픽 처리 및 안정성 문제 발생시 싱글포인트 장애 문제점 존재
- 민간 중계서비스 시장에 대한 침해 소지 가능성 존재

방안3: 통합 모듈 개발 및 관리



- 표준화된 통합 중계 모듈을 개발 검증하여 제공
- 기능구현 적합성 평가, 보안취약점 점검 등에 대한 사전검 증으로 신뢰서비스의 품질을 보장
- 이용기관과 서비스 사업자간의 요구 사항 및 분쟁 상황 시, 중간자 역할을 수행
- 개별 신규 인프라 구축에 비해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시사점

이용기관의 도입 편의성, 운영용이성, 신뢰서비스 관점



국민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선택권 제공 강화 관점



방안3 통합 전자서명모듈 지원 및 관리 체계 중심으로 진행

다양한 전자서명 상호연동 지원 추진전략

VISION

신뢰성이 보장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선택권 제공으로 <u>국민 편의성 제고 및</u> 안전한 전자서명 시장 조성

구현방안

- 디지털인증 확산센터 신규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 이용기관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신청 절차 마련
- 통합 전자서명모듈의 보안성 점검을 위한 절차 및 환경 구축 방안 마련
- 통합 전자서명모듈의 각종 편의성 확보를 위한 절차 및 시험환경 구축
- 통합 전자서명모듈의 신뢰성 있는 배포 및
 관리 방안 마련

추진방향

신뢰성이 검증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선택권 제공을 위한 디지털인증 확산센터 구축

표준화 수립 및 통합 전자서명모듈의 개발 및 관리를 통해 검증된 서비스를 이용기관 측에 제공

지속적인 배포 및 관리 체계 마련

추진전략

- 1. 신뢰된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정립 및 검증을 위한 체계 마련
- 2. 이용기관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협의 및 검증환경 구성
- 1. 표준화 수립 및 준수여부를 검증하여, 범용성이 보장된 통합 모듈을 개발
- 2. 보안성 점검 및 이용성을 검증하여 이용기관의 도입 편의성을 제공
- 3. 통합 전자서명모듈 제공을 통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을 해소
- 1. 이용기관의 참여 및 승인 절차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운영
- 2. 효율적인 운영환경을 위해 배포 체계 및 장애 관리체계를 마련

디지털인증 확산센터 주요 역할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민간 중심의 다양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출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 • 인정제도를 통해, 다양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 신뢰성 확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통합 개발하여 차별 없는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전자서명 선택권을 강화

디지털인증 확산센터의 주요업무 정의

- 전자서명인증 기술 통합 전자서명모듈 개발
- 전자서명인증 기술 구현 적합성 평가
- 개발된 통합 전자서명모듈의 보안성과 안전성 검증
- 통합 전자서명모듈의 성능 및 부하 시험
- 웹 표준 적합성 점검
- 인증 절차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표준화

표준화 및 개발

-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표준화 협의체 및 분과별 운영지원
 - 전자서명 이용분야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 이용기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사용자 불편 수렴 및 개선활동
- 표준화 인터페이스 개발
 - 사용자에게 친숙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 배포용 라이브러리 개발
 - 성능 및 보안성 검증이 완료되고, 손쉬운 연동성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개발

기능성 및 보안성 점검

- 테스트랩 운영
 - 전자서명서비스의 기능구현 적합성, 상호연동 시험 등 사전 점검
- 기능/성능/보안성 테스트
 - 웹 표준 적합성 점검, 성능 부하 시험, 보안 취약점 점검

배포체계

- 실시간 배포체계 지원
- 이용기관 대상 매뉴얼 발행
 - 전자서명 라이브러리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이용기관용 적용 매뉴얼 지원
- 상호연동 지원 및 컨설팅 수행
 -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용기관간 서비스 적용을 위한 안내 및 지원

이용기관협약

- 이용기관 신청 및 승인 체계
- 이용기관 코드 및 접근 키 생성, 관리 지원

장애관리

- 장애 내역 수집 및 분석
 - 인증 건수 및 오류내역 분석, 통계
- 이용기관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간 중간자 역할

디지털인증 확산센터 구축 방안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확산 시범지원 사업 추진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확산 시범지원(40개 이용기관)



향후 추진계획

디지털인증 확산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한 통합 이행계획 수립 및 실행

추진 단계

1단계: 디지털인증 확산센터 신규 구축 및 시범운영

주요 내용

 시범 운영 단계 디지털인증 확산센터를 신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

추진 방향

- 디지털인증 확산센터 신규 구축
- 전자서명인증 모듈 및 UI 통합 개발
- 통합 모듈 기능구현적합성 평가, 성능 • 부하 점검, 보안성 검증 등을 위한 테스트 랩 구축
- 시범 운영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2024년)

2단계: 디지털인증 확산센터 정식 운영 및 확산

● 서비스 확산 단계

디지털인증 확산센터 시범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기관 적용을 확산하고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단계

- Kind This is
- 디지털인증 확산센터 시스템 안정화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확대 적용
- 이용기관 참여 확대
- 서비스 확산,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디지털인증확산센터 고도화 계획수립

3단계: 디지털인증 확산센터 신기술 확대 및 고도화

● 시스템 고도화 단계 X.509 기반 전자서명인증 기술과 더불어 DID 등의 신기술 적용을 통한 디지털인증 확산센터 내 시스템 고도화 단계

- 통합 모듈에 대한 성능 및 지원 범위 개선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 이용기관 확대로 인한 설비 고도화
- 분산신원증명 등 신기술 적용
- 트러스트앵커 체계 구축방안 마련
- 민간 디지털지갑 지원방안 마련

기대 효과

1 국민 관점

-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통합 제공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권 강화
- ☑ 기능, UI/UX의 표준화를 통한 사용자의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이용혼란 감소
- ☑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의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안전성 강화

2 이용기관 관점

- ☑ 다양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개발 및 연동에 소모되는 비용 감소
- ☑ 다양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속 적용 가능
- ☑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제공
- ☑ 사용자에게 동일한 기능 및 이용 환경 제공을 통한 편의성 개선

3 인정사업자 관점

- ☑ 디지털인증 확산센터에 참여하는 이용기관에 전자서명인증서비스 확산
- ☑ 개별 연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 적용지원 등의 소모 비용 감소
- ☑ 다양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차별 없는 공정경쟁 환경 마련

시큐업세미나2022

디지털 인증의 현재와 미래